

인간은 왜 다른 동물보다 더 이타적인가?

김준홍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와 인간의 육체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과 문화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침팬지 사회에도 문화적 변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집단 간 문화의 변이는 침팬지의 그것을 훌쩍 뛰어넘으며, 침팬지 문화에는 없는 고유성이 인간 문화에는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사회에서는 암묵적인 규범이 있으며 그 규범을 어긴 자에 대한 공공기관 또는 제 3자의 처벌이 발생하는 반면, 침팬지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은 존재하지만 규범을 어긴 자에 대한 제 3자의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는 기존의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혁신이 더해지며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문화가 존재하지만, 침팬지 사회에서는 그러한 혁신의 누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협동과 관련되는 본성과 사회구조는 어떠한가?

사육 상태에 있는 침팬지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침팬지는 다른 개체가 심지어 그 개체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더라도 이익을 얻는지, 얻지 않는지에 거의 관심이 없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벌, 개미,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비롯한 진사회성 동물(Eusocial Animals)을 제외하고는 집단에 속한 개체 숫자가 80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진사회성 동물들의 협동은 혈연 간의 협동으로 설명 가능하다. 반면에 인간은 혈연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 외집단의 이방인과도 협동할 뿐만 아니라 협동 집단의 규모도 침팬지보다 훨씬 크다. 인간은 음식과 주요한 자원을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부집단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 기르기를 도와주기도 하며,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친구나 심지어 이방인을 구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이러한 큰 규모의 협동을 일컬어 ‘초사회성’(Ultrasociality)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초사회성은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을까?

주요 논의 내용

- 동물과 인간의 이타성의 차이
- 경제적 실험을 통해 알아본 인간의 이타성
- 집단 간 이타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이
- 이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초사회성의 진화
- 이타성의 진화가 가져온 명암들

김준홍

행동과 본성을 포함한 인간의 많은 형질이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자다. 현재 인간 협동의 진화, 문화의 계통발생도, 인간 문화의 고유성 등을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생물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적 집단 선택론은 초사회성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가설의 핵심은 인류진화사에서 특정 시점부터 같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이타성을 장려하는 문화적 규범이 집단 간에 정도는 다르지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 특정한 시점은 아마도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학습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던 시점일 것이며, 인류진화사에서 비교적 최근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타성과 관련이 있는 문화적 규범의 변이는 집단 간 이타성의 변이로 나타나게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타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쟁에서 유리했다면 현대 인간 사회에서는 집단 구성원들간의 이타성을 장려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규범을 내재화하고 따르려는 본성, 규범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 등이 넓게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경우, 이타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암컷이나 수컷 중 한 성은 성체가 되면 다른 집단으로 모두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간 이타성의 변이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주에 의해서 집단 간 변이가 사라진다면 집단 선택은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타성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 사회에서 문화적 규범의 집단 간 변이는 대개 이주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문화 진화의 메커니즘이 개입한다.

첫째, 사람들은 집단의 다수가 따르는 규범을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따라서 집단 내 규범의 변이가 줄어들며, 이웃 집단에서 이주가 발생하더라도 집단 내 문화적 규범의 균질성은 유지된다.

둘째,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집단의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 행동을 제지하거나 처벌을 가한다. 따라서 확립된 규범에서 벗어나는 규범은 확산되기 어려우며, 본성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도 남들의 시선과 자신의 명성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규범을 따르는 자들은 같은 종족적 표지 즉, 같은 방언, 같은 옷 입는 방식, 같은 헤어스타일 등을 지닌 사람들(따라서 동일한 규범을 공유하는 자들)과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같은 문화적 규범을 지닌 사람들끼리의 유유상종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같은 종족적 표지를 공유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함으로써 상이한 규범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화적 집단 선택으로 인해 인류는 가까운 혈족과 소수의 친구를 넘어서는 사람들과 큰 집단을 이루고 비교적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집단 선택론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집단 내 구성원에 대한 이타성은 집단 외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또는 자민족중심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 내 구성원에 대한 이타성은 이기적인 무임승차자에 대한 방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수단은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문화적 표지를 공유한 사람들과의 유유상종과 자신과 다른 규범을 지닌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이기 때문이다.

일시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